

# 세월호 국조특위 기관보고...靑 김기춘 실장이 한다

### 여야, 30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일정 합의

### 野의원들 “청와대 자료 단 한건도 제출 안해”

세월호 국정조사특위는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기관보고를 받기로 합의했다.

국조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 새정치연합 김현미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기관별 보고일정은 ▲6월30일 안전행정부·국방부·전라남도·진도군 ▲7월1일 해양수산부·한국해운조합·한국선급 ▲7월2일 해양경찰청 ▲7월4일 교육부·보건부

지부·고용노동부·경기도 교육청·안산시 ▲7월7일 방송통신위원회·KBS·MBC ▲7월9일 법무부·감사원·경찰청 ▲7월10일 청와대(비서실·안보실)·국무총리실·국가정보원 ▲7월11일 종합질의 등이다.

김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기관보고는 각 기관의 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 비서실 기관보고는 김기춘 비서실장이 하게 됐다.

다만 감사원은 사무총장이, 방통위는

부위원장이, 청와대 안보실은 제1차장이, 국무총리실은 국무조정실장과 총리 비서실장이 하기로 했다.

국무총리실 기관보고에서 국무조정실장과 총리 비서실장의 답변이 미진하다고 판단 시 종합질의 때 정홍원 국무총리의 출석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모든 기관보고는 공개하되 국정원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하기로 했다.

한편, 세월호 국정조사특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측 의원들이 청와대에 총 185건의 자료를 요구했지만 지금까지 단 한건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현미 의원 등 8명의 의원들은 국정조사 계획서가 채택되고 이날 2일부터 본격적으로 특위가 가동

된 시점부터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에 120건, 국가안보실에 65건의 자료를 요구했지만 한 달이 지나도록 제출된 자료는 단 한건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정조사를 시작한 지 4주차에 접어들었는데, 이를 무력화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 부실 자료제출이 도를 넘어섰다”며 “정부는 서류제출을 미루거나 제출하더라도 문제의 본질을 회피하는 두루뭉술한 답변으로 국정조사 수검에 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새누리당 소속인 심재철 특위 위원장은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하 임하라고 위원장이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모처럼 밝은 표정 여야 간사 세월호 국정조사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조원진,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열리는 기관보고 일정을 통과시키고 나서 밝은 표정으로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 막오른 장관 인사청문회...29일 한민구 국방장관 후보 첫 스타트

박근혜 정부 2기 내각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이 속속 확정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일요일인 오는 29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기로 지난 25일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국방위는 이날 한 후보자의 업무능력과 도덕성 등을 점검한 뒤 인사청문회 결과를 보고서도 채택할 예정이다.

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다음달 8일 정중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안행위는 오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번 인사청문회에 참석할 증인과 참고인을 결정하고 인사청문회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인사청문회 결과보고서는 청문회 당일 채택하는 방향으로 여야가 협의 중이다.

이와 함께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도 내달 9일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내달 10일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각각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기로 교문위 여야 간사가 합의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교문위는 이에 앞서 오는 30일 전체회의

를 열어 이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할 계획이며, 청문회를 거친 뒤 다음달 11일에 인사청문회결과보고서를 채택한다는 방침이다.

여야는 향후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 이병기 국가정보원장 내정자, 김희정 여성가족부장관 내정자,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 내정자,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내정자의 인사청문회 일정도 각 상임위원회별로 확정될 예정이다.

/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7·30재보선 15곳 확정

### 새누리당 성완중 의원직 상실

### 정두언 파기환송 의원직 유지

새누리당 성완중 (충남 서산·태안) 의원이 26일 대법원 판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가 되면서 7·30 재보선 지역이 모두 15곳으로 늘어났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같은 당 정두언(서울 서대문) 의원은 이날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당분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번 재보선 지역은 이 같이 확정됐다.

이로써 이번 재보선은 2002년 8월 재보선 때의 13곳보다 2곳 많은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지게 됐다.

권역별로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6곳, 영남 2곳, 호남 4곳, 충청 3곳이다.

기존 새누리당이 차지했던 지역은 서울 동작을, 부산 해운대·기장갑, 경기 김포, 경기 평택을, 대전 대덕, 울산 남구를, 경기 수원병, 충북 충주, 충남 서산·태안 등 9곳이다. 야권이 차지하던 지역은 경기 수원을, 경기 수원병, 담양·함평·영광·장성, 나주(이상 새정치연합 4곳), 순천·곡성(통합진보당), 광주 광산(무소속 이용섭) 등 6곳이다.

이에 따라 여야는 재보선 승리를 위한 총력전 준비를 갖추고 있다.

지난 22일부터 전날까지 실시된 새누리당 후보자 공모에는 총 53명이 응모해 뜨거운 열기를 보였다.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순천·곡성 단독지원),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평택을), 이혜훈 전 새누리당 최고위원(울산 남구을) 등이 출사표를 던졌다.

/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7·30 재보선 브리핑

### 이개호, “전·현직 지방의원 80명 지지 선언”

7·30 담양·함평·영광·장성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관련해 4개 지역 광역·기초의원 80명이 26일 이개호 예비후보 지지 선언했다.

도의원 당선인 6명, 군의원 당선인 21명 등 전·현직 지방의원 80명은 이날 지지선언문을 통해 “크기가 다른 경험과 능력, 변함없는 인품으로 지역발전과 주민화합을 이끌 수 있는 이개호 예비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 후

보는 농업·농촌을 위하고 사회·경제적 약자의 편에서 일한 실무적 경험과 대한민국 최초로 생활행정을 도입해 민생을 돌본 준비된 생활정치 전문가”라며 “오직 한 길만 걸으며 정도(正道)의 정치를 해낼 것이다”고 지지했다.



### 고재경 “순천·곡성 생태관광 메카로 조성”

7·30 순천·곡성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선 새정치민주연합 고재경 예비후보는 26일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밝혔다.

고 예비후보는 이날 순천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주요 공약발표를 통해 ▲은퇴자마을 조성 ▲귀촌·귀농인 지원 등 농촌생활지원 ▲순천만정원의 국가정원 지정 추진 ▲순천에 공공의료대학 설치 ▲생태마을 조성 및 압록 백사장 복원 ▲심청과 도깨비 콘텐츠 개발을 통한 섬진강-대항강 프로젝트 추진 ▲

광주-순천 간 경전선 복선 및 직선화 추진 등을 제시했다.

고 후보는 “순천·곡성에서 오랜 기간 시민사회 활동을 했고 8년간의 국회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의 현안과 과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역의 요구를 제대로 해결하고 추진해 나갈 책임자”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 구희승, 순천·곡성 출마...“지역 정치적 분열 종식”

구희승 변호사는 26일 “지역의 불안정한 정치를 바로잡고 지역발전에 헌신하겠다”면서 순천·곡성 보궐선거에 출마를 선언했다.

구 예비후보는 이날 순천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에 당선된다면 전 시민의 화합과 동참을 이끌어 내겠다”면서 “매일 1번씩 시장과의 정책협의를 통해 정치적 분열을 종식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어 “돈이 흐르는 순천·곡성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와 기업의

투자를 통해 산업적 기반을 대폭 강화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순천만 정원 국가정원 지정 ▲순천대 의과대학 유치 추진 ▲전남 동부권 의료 인프라 구축 ▲전남도청 제2청사 유치 ▲섬진강 중심 문화 관광사업 적극 지원 방안 마련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 강백수, 나주·화순 출마선언...“도농복합도시 구축”

강백수 세무사는 26일 “과거 정치질서를 바로잡고, 나주·화순 발전을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면서 7·30 나주·화순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강 예비후보는 이날 화순군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복지·일자리 창출·의료문제·노후문제와 나주·화순 도농 복합도시에 맞는 정책과 비전으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고자 한다”면서 “이제는 여성이 선명한 사람, 국정운영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참신하고 능력 있는 경쟁력있는 현장의 전문가가 필요

할 때”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이어 “연고 공천, 불공정 공천, 패거리정치, 부패 정치는 낡은 정치이고 구태정치”라며 “나주·화순 지역민이 힘을 모아 이제 구태정치를 심판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지리산 노블랜드

즉시입주

## 산 좋고 물 좋고 공기 좋은 백운산 500고지

**콘도/팬션/별장**

자연과 함께 하는 친환경 장소!  
광주에서 1시간 10분 거리!  
화개장터, 쌍계사, 화엄사, 노고단 근접

등기이전 및 상담 - 김주현 법무사  
062)418-9000 H.010-4451-6686

분양가격(공유면적 포함)	대출가능금액
18평(28실) 6300만원	개인 신용도에 따라 40~50%정도 대출가능
28평(26실) 9800만원	
56평(1실) 1억9600만원	

**지리산노블랜드 / 구례군 간전면 운천리 453**  
분양상담 061)783-6001 H. 010-2928-0202

대표, 최 선 규 드림  
문의, 010-3605-5000  
광주 동구 천변우로 339, 2001호

# “경매”에 관한 모든 것!

■ 특수 비법 배우실 분!  
임장/교육비 등 1200만원  
NPL과 특수물건만 취급  
주1회 3개월 완성  
배우면서 투자 가능  
단, 상담후 본사 결정

■ 공동 투자 하실 분!  
소유권 이전으로 보장  
매매 할 때까지 책임 보장

■ 낙찰 물건에 투자 하실 분!  
근저당으로 보장  
월 10% 이상 이자 지급

■ 사무실 같이 쓰실 분!  
정보 공유 등 집기 제공  
연 사용료 1200만원

■ 매수 신청 대리!  
원하는 물건을  
최소 비용으로 처리